

동방불교대 졸업해야 '수계 자격'

태고종 종도교육체계 강화 '선교육 후득도제' 시행

학과명칭 변경... 불교미술학과 3년제로 연장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종도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다진다. 태고종은 종립 동방불교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수계 자격을 줄 방침이다. 태고종은 올해를 '선교육 후득도' 제도 정립 시행의 원년으로 정하고 동방불교대학 역할을 강화해 향후 4년 내 종도교육기관으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동방불교대학을 졸업하고 득도하는 스님에게는 법랍 5년의 경력을 인정해 선덕(善德) 법계를 흡수할 방침이다. 재가승려(전법사)에게도 법랍 5년 경력의 수교(受敎) 법계를 흡수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이 같은 종단 방침에 의해 동방불교대학은 학과 명칭과 학제 운영 시스템을 정비했다. 현재의 '승가과'를 '승가학과'로, '법과'를 '법학과'로 바꿨다. 교육 커리큘럼도 실기나 기능중심이 아닌 이론 교육에 비중을 더 많이 두었다. 실기교육

을 기반으로 하되 학적 토대 구축도 이뤄 나가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2년제로 운영돼 오던 불교미술학과도 올해부터 3년제로 전환된다. 단 청장만 있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분야가 단청장과 불화장으로 나뉘면서 보다 내실있는 전통미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동국대와 위덕대, 금강대 등 기존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강사진들도 대폭 초빙한다. 18명의 전문 교수진들이 학교 측과 연계해 학사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춘생 동방불교대 교학처장은 "올해 이론 중심으로 새로 짜여진 동방불교대의 커리큘럼은 철저히 출제자들이 아우르는 태고종도들의 재교육에 맞춰져 있다"며 "입학생 비율을 보면 기존 종도들이 70%, 일반인들이 30% 정도인 상태"라고 밝혔다. 하 처장에 따르면 일반 입학생중 10% 정도는 실제로 출가를

하는 상황. 동방불교대는 이미 종도교육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운산 총무원장 스님이 지난 1월 3일 신촌 봉림사에서 열린 시무사에서 "올해 안에 종도재교육 연수시설과 동방불교대의 새 부지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것도 종도 교육에 치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이태욱 동방불교대 교학국장장은 "빠르면 금년 내로 종단은 하드웨어인 교육 시설지원, 동방불교대는 소프트웨어인 종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호흡을 맞춰 체계적인 교육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태고종 총무원 2기 집행부 부장급 인사

기획 백운 교무 법안 재무 동우 문화 묵원 교임 기봉 스님

태고종은 1월 5일자로 2기 집행부를 이끌어갈 총무원 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부장에 백운 교무부장 스님을, 교무부장에 법안 기획부장 스님을, 재무부장에 동우 교임부장 스님을, 문화부장에 묵원 사업부장 스님을, 교임부장에 기봉 문화부장 스님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 한편 월해 총무부장, 법현 사회부장, 성중 호법부장은 유임됐다. 이와함께 총무원 실무 총무행정 업무

를 맡아보는 3개 팀으로 나누는 실무팀 책임제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실무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총무원국장은 법안 재무팀국장을, 재무팀국장은 법안 기획팀국장을, 기획팀국장은 법안 기획팀국장을, 각각 전보 발령하고 교무팀 국장에는 휴암 총무원 사서실장이 겸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운산 총무원장 스님은 장진호 총무원장 사서를 문화과장에 전보 발령하고, 총무원장 사서에 성오 스님을 새로 임명했다. 김주일 기자

각종단 새해 힘찬 출발

- 조계종** "종단발전 다지는 소임 다하길"
- 태고종** 전승관 불사 완공의 해로
- 천태종** 복녘동포에 자비법음 전파를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 종무기관이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거행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종무기관 및 산하단체는 소속 종무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시무식을 갖고 2006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시무식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공직에 있는 자가 이권을 취하거나 공평하지 못하면 법이 어지러워진다"며, "스스로 종단발전의 기틀을 다져야 할 종무원이라는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도 1월 3일 오전

11시 신촌 봉림사에서 '2006년도 신년하례 및 종단 시무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해 남과 승정원장, 인공 중앙종회회장, 월운 중앙사정원장 스님 등 5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운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가장 중요한 종단의 사업은 전승관 불사의 완공"이라며 "내년부터 임원 스님들과 전국을 순회하며 전승관 불사의 참 취지를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태종(총무원장 언덕)도 1월 3일 오전 10시 단양 구인사에서 시무식을 가졌다. 2백 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가운데)을 비롯한 주요 종무직 스님들과 총무원 대표가 시무식 축하 떡을 절단하고 있다.

무식에서 언덕 총무원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병술년 새해 우리종단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대부사업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사부대중이 함께 힘을 합쳐 복녘동포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법음을 흥포하자"고 격려했다. 진각종(총무원장 회정)은 1월 4일 오후 2시 서울 통리원 종의회 회의실에서 2006년 병술년 시무식을 봉행하고 희망찬 종무행정 새출발을 다짐했다. 회정 통리원장은 "올 한해는 진언과 염송, 전법가 등 진각종 소리문화의 체계화

를 정립해 나가는 원년으로 삼고 그 사업에 힘쓰자"고 밝혔다. 대승종(총무원장 법천)은 1월 4일 오후 1시 서울 신당동 흥도사에서 종도대회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조동종(총무원장 심월)도 강서구 둔촌동 총무원 법당에서 원웅종(총무원장 법륜)은 12시 구로동 총무원 법당에서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법상종(총무원장 해월)도 1월 4일 오후 2시 평택 총무원에서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김주일·조용수 기자



나눔현장

영등포구 사랑나눔 푸드마켓

음식 나누며 온정 전해

"필요한 물건을 골라갈 수 있으니가 좋지요" 최한배(74·영등포구 대림동) 할아버지는 '영등포구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방문하기 위해 신길6동까지 오랫동안 외출했다. 이 가게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무료로 나눠준다는데 소식을 듣고 온 것이다. 15평의 작은 매장 안에는 다섯 개 묶음으로 포장된 라면, 진공 포장된 김치와 밀반찬들, 쌀과 각종 3분요리식품,

준. 하지만 "매장도 깨끗하고 물건도 풍부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점차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신길복지관은 지난해 영등포구로부터 푸드마켓 위탁업체로 선정된지 3개월만인 12월 28일에 개소했다. 자치구 협의회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푸드마켓을 지역 복지관이 위탁운영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무엇보다도 불교계 복지관의 푸드마켓 운영은 처음 있는 일이라서 더욱 뜻 깊다.



한달에 한번 무료로 음식을 가져갈수 있는 영등포구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둘러보고 있는 어르신.

저소득층 주민대상 식료품 무료공급

작년말 문열어...입소문에 이용객 늘어

쌀, 식용유 등이 선반마다 빼곡히 들어차 있다. 또 다른 방문객인 김숙자(69·영등포구 신길6동) 할머니는 세 가지 물건을 집어 들었다. "쌀과 김치랑 쌀떡이랑 좀 가져갈꺼야. 겨울이라 먹을 것이 곤궁했는데 이렇게 쌀떡을 가져갈 수 있으니 올해는 떡도 좀 가져먹을 수 있겠구먼." 서울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공상)이 운영하는 '영등포구 사랑나눔 푸드마켓'은 영등포구 내에 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식료품을 공급하는 복지시설이다. 이곳의 식품은 모두 기업이나 개인에게 기증받아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한 달에 한번, 세 가지 품목을 선택해 가져갈 수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11시에서 5시까지. 아직 하루 이용자는 평균 5~7명 수

신길복지관은 앞으로 영등포구 생활수급권자 8000명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장지연 재가복지팀장은 "불경기라서 기부문화가 크게 일어났다고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음식을 나누는 온정으로 삶의 희망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푸드마켓은 기업과 불자들의 자발적인 기탁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13곳의 기업이 따뜻한 나눔의 정성을 보여주며 기탁을 해왔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탁자가 필요하다. 푸드마켓에 후원물품을 내고자 하는 기업이나 불자는 푸드마켓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동참할 수 있다. (02)843-1377 이은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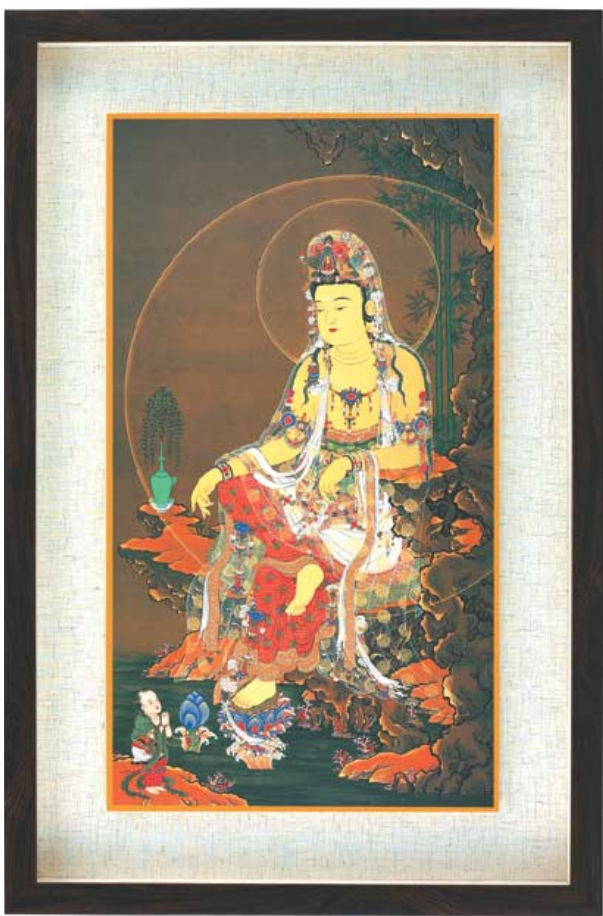
수월관음도

가정과 사업장의 번영의 수호신

가정에 1점씩 영험의 가보로!

만사형통의 불화!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 않는 불화!



높이 88cm, 폭 58cm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고뇌와 고통을 구제하는 자비의 부처님으로 관세음보살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앙은 매우 열렬하다. 수월관음도는 하늘에 뜬달이 비칠듯이 맑은 뜻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상과 꿈 등이 물에 비친 달이 덧없음과 같다는 것을 깨우침으로써 인생의 고난을 초월하도록 하고 자비로운 구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수월관음도 불화는 100% 천연코튼 판화공예에 28도 옅색화안쇄와 베를린 왁스를 사용해 진품과 다를없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 않는 특별 제작된 불화다. 영험의 고귀 불화 재현을 위해 30년이 넘는 세월을 장인정신 하나로 이 시대를 살아온 불화의 명장 法性 김의식 화백께서 기도와 영험으로 제작된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삼재물 소멸하고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며 시작부터 중요하게 하는 영험을 담고 있는 불화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주는 가정의 가보로 손색이 없는 불화로 평가받고 있다. 최고급 2단 돌출 표구로 제작되어 품위가 있으며 가정과 사업장에 번영과 안녕의 수호신으로 1점씩 꼭 있어야 할 영험의 불화로 축원불공을 마치고 보급하고 있다. 보급대행은 한국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정정해 보내준다. 가격168,000원 문의전화(02)735-6919 농협053-12-102911

평생 부자지갑

종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봉지갑 (검정,방색)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

관세음보살 福 지갑

병술년 원하는 재물을 얻고 소원 성취하라!!

삼재를 소멸하고 악귀와 잡귀를 쫓는 금강저도 부처

60년만에 온 병술년은 재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재운이 오는 좋은 해다. 세상은사든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동서남북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되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 불공속에 만든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지갑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삼재를 소멸하고 악귀와 잡귀를 쫓고 승리하는 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 천연 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

갑과는 비교할 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진 최고급지갑으로 안색면 장사와 사업이 잘되고, 사업실패로 좌절하던분은 복권에 당첨되고, 포기했던 돈이 들어오고, 쌓여있던 재고가 팔리고 증권과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는 등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나타나는 지갑이다. 여성용 銀나노 보라색은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병술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 드리며 복지갑은 바로 보내준다. 남성용6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SkyLife 위성방송 무료로 설치해준다.

최고의 화질 세계를 한눈에 난시청사찰에도 최고!

불교TV와 123개의 다양한 채널 3개월간 시청료 무료

디지털위성방송 Sky Life설치 사찰이 크게 늘고 있다. 무궁화3호 위성에서 발산되는 고품질은 국내방송은 물론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아날로그와 비교할 수 없는 디지털화질 영상과 CD수준의 생생한 사운드로 TV를 볼수있고 디지털방송만이 가능한 생방송 서비스로 TV를 보면서 리모콘으로 각종개입과 각종정보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로TV화면을 통해 조작할 수 있다. 123개의 다양한 채널이 수준높은 문화를 만끽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영어및 외국어 교육에도 큰도움이 되고 있다. 종전에는 위성방송을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쉽게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설치비 없이 월시청료 23,000원내내 한국 디지털 위성 방송에서 바로 설치해 준다. 산간벽지사찰 난시청 지역에도 즉시 설치되며 이사할때에는 전국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전화로 설치할 장소와 주소 성명을 알려주면 2일내에 전국 어디든 설치해준다. 12월말까지 Sky Life설치를 신청하는 분께는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수액 파차단카드를 특별선물로 드린다. 문의전화(02)741-4477

